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 3월 29일(금)
- 회의장소 : CJ아지트 대학로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정숙, 엄현희, 우연, 정안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은 우수 신작 발굴을 목적으로, 1차 서류심의/2차 인터뷰 심의를 거치며 94건의 지원단체 중 11건을 선정하여 3차 실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연심의회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으며, 11개 단체에서 준비한 60분 이내 낭독형 실연(CJ아지트 대학로점)과 창작진 인터뷰가 함께 이뤄졌습니다. 지원심의 기준은 1, 2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 항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 실행역량의 우수성,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를 기준으로 심의위원이 평가하였으며, 실연심의를 관람한 관객평가단 점수가 합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 사업은 총 7개 단체에 대해 1,110,000,000원을 지원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낭독형 실연심의를 통해 1, 2차 심의에서 확인하였던 창작 단체의 아이디어와 목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단초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낭독형 실연이란 환경적 제약 조건에서 미처 드러나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창작진 인터뷰를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연심의회는 창작 단체의 처음 계획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창작 단체가 어떠한 예술적 선택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선택의 이유는 무엇인지, 설득이 될 수 있는지, 만약 변화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11개의 실연심의 대상 작품들은 모두 나름의 목표와 성취 및 예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도전과 실험이란 미래적 가치와 다양성이란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한국연극의 형식적 풍경을 담아내는 점에 주안점을 뒀 다큐멘터리적 기법, 인형극, 국극, 우화적 기법 등을 포괄하는 창작 단체들의 다양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주제적으로는 대안공동체 혹은 대체 가족의 개념 등을 다루거나 소수자성에 대해 세심하게 접근하는 시도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또한 상상력을 키우고 공간을 새롭게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대극장 등 여러 공간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항도 긍정적 요소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여러 의견을 심층 토의를 통해 좁혀가며,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분야는 7건의 창작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실연심의회까지 진행된 작품들은 모두 뛰어난 예술적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작품 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아이디어와 목표가 무대에서 온전히 살아나기를, 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지게 빛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연극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3월 12일(화) ~ 3월 15일(금)
- 회의장소 : CJ아지트 대학로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아람, 박정아, 배새암, 이봉규, 조용신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분야 심의위원들은 4일간 11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최종 실연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차 서류, 2차 인터뷰를 거친 11편의 작품 중 총 7편을 본공연 제작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7편의 작품들은 건당 최대 250백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제출된 예산 운영 계획과 공연장 크기 및 작품의 규모를 종합해 개별 작품에 맞게 지원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4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20%),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10%)를 기준으로 본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실연으로 이루어진 심의 과정에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5명의 관객평가단의 관객평가 점수가 합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평가(80%)와 관객평가단의 평가(20%)는 대부분 유사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전체 가용 예산이 총 1,575백만원으로 증액이 이루어졌고 3차 심의기준에서 '기대효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신작 뮤지컬이 일회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우리 콘텐츠의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작품 출현에 대한 기대를 담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들은 작품의 기본적인 완성도와 더불어 작품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단체의 역량과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중지를 모아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지원 작품들은 저마다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뮤지컬 속 세부 장르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창작자와 제작자가 의기투합하여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는 제작 의도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작품들을 선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극작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동시대성과 이를 극 중에서 수행하는 캐릭터가 관객에게 매력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제출된 대본과 인터뷰를 통해서 정리된 작품의 방향성이 실제로 실연을 통해서 얼마나 완성에 다가갔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 중에는 곳곳한 소재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완성도가 느껴지는 창작이지만 내용과 형식에서는 기시감 있는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보다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흔한 소재의 작품이지만 무대 언어로 풀어나가는 방식에서 신선한 접근이 기대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대본 실연만으로는 다소 모호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음악을 통해서 해소되어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창작자가 중심이 된 단체들은 보다 정교한 상업 예술 장르로서 뮤지컬 제작과 마케팅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키우는 일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단체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드라마와 음악이 어우러진 뮤지컬의 장르적 특징을 보다 많은 이들이 완성된 작품을 통해 느끼게 하는 기회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도 긴 호흡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더 좋은 시간에 관객들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뮤지컬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11일 (목) ~ 4월 13일 (토)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남진, 김세연, 김신아, 김진원, 박성혜

2024년 무용분야 창작산실은 무용공연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신작들을 집중 양성 및 발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실연을 기반으로 하는 최종 심의는 총 11개의 단체가 참여하였고, 최종적으로 7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의 큰 특징은 한국무용 창작 부분이 실연심의에 많이 참여했다는 점과 사회문제들에 대한 안무가들의 관심과 작품화가 큰 특징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노인치매와 택배노동과 같은 주제들을 무대화하면서 나름의 안무적 전략을 일반인 참여, 작업장에서 구현되는 움직임과 동선을 리서치한 작업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단순한 접근과 소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우려가 동시에 작동되지만 나름의 준비성과 전문성으로 안무적 대안이 인상적이기에 추후로도 기대되는 내용을 보였습니다.

한국춤을 기본으로 제안되는 지원작들도 단순한 서사 나열, 이미지 중심, 제의식의 첨예화가 다소 의구심이 들었지만 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한 세심한 준비와 다양한 조연자들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리라는 신뢰가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자 모두 무용수들이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었으며 저마다의 전문성과 다수의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발레와 현대무용의 경우에도 예술적 실험성이 독특한 작업부터 대중적 친화력과 접근의 용이함을 동시에 고민하는 작업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통에 집중하며 마케팅에 유념하는 점, 재공연의 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 작품 제작 및 추후 진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최종 심의에서는 추후 재공연의 가능성을 우선시 고려하여 기획자의 전문성과 후속 사업 진행의 구체화 또한 선정의 주요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회성 공연보다는 해당 작품이 무용단의 주요 레퍼토리로 정착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유통·활성화의 가능성에도 주목하였습니다.

본 심의에서 참여작들이 대부분 대극장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 이번 지원작들의

또 다른 특징이었으며 이에 제한된 지원금이라는 제약 때문에 많은 작업들이 선정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문제의식과 예술적 시도들, 도전적이고도 혁신적인 작업 방식들이 매우 인상적이었기에 무용 공연의 미학적 층위가 다양해지는 동시에 두터워지고 있음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창작산실 사업은 공고부터 최종 작품 발표까지 1년이 훨씬 넘는 물리적 시간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작품 구상과 협력 예술가 섭외 및 구체화 작업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기간은 단순히 1년의 사업이 아닌 수년간의 노고와 고민이 통찰되고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임하는 모든 무용가들의 각각의 수고와 열정이 그대로 확인이 되는 최종 심의였습니다. 이에 모든 참여 예술가들의 열정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었으며, 본 사업의 최종심의 참여자 모두에게 거듭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무용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 4월 18일(목)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혜선, 신보현, 이민희, 최지연, 한경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사업은 예술의 동시대성과 다양성, 수월성, 실험성을 지향하는 우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 공연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심의 과정은 서류심의, 인터뷰 심의, 실연심의로 진행되며, 올해의 신작에 최종 선정되면 본 공연 작품 제작비와 홍보 및 온라인중계가 지원됩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분야 사업에는 1차 서류심의에서 23건의 지원신청인(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그 중 8건에 대한 인터뷰 심의가 2023년 12월 16일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심의에서는 총 5건이 선정되었으나, 그 중 1건이 핵심 창작진 변경에 의한 재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4건의 지원신청인(단체)이 3차 실연심의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7일에서 18일까지 진행된 실연심 의에서는 정해진 공연 준비 시간을 준수하며 각 지원신청인(단체) 마다 20분의 공연 및 15분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연심의를 예술적 우수성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작품성에 40%의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기획 및 소재의 창의성을 가늠하는 것은 물론 포트폴리오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 으며, 본 공연으로 발전시킬 경우 동시대성을 담보한 작품일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 고했습니다. 또한 창작자와 출연자 등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있는지 등의 실행역량의 우수성에 20%, 예산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세부예산 항목의 산출근거가 적절한지 등 예산 및 일정 계획의 타당성에 10%의 배점을 부여했습니다. 향후 우수 창작 공연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연예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지 등의 기대효과에도 10%를 배정하였습니다. 실연심의를 5인의 심의위원 점수 및 관객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두 개의 올해의신작 사업을 선정 하였습니다.

실연심의에 오른 총 네 건의 지원신청인(단체)은 한정된 시간과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음악에 집중하며 창작 의도와 예술계의 기여도 등 을 고려하는 긴 시간의 논의가 이어졌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얼마나 힘 들고 고통스럽고 신성한 작업인지 단체들과 심의위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그리 고 창작으로 앞으로의 예술을 리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예술가의 권리이지 의무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창작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면밀히 계획할 수 있

는 포트폴리오와 예산계획서 또한 중요한 심의의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서류 검토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국내 음악계에는 여전히 창작 음악을 위한 밀착된 전문 기획력이 부재하다는 점, 다수의 지원신청인(단체)이 예산 편성을 비교적 면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보완되어야 할 아쉬운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음악 분야에 선정된 두 작품은 예술의 동시대성을 보여주며 음악의 새로운 형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님에도 그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공연예술로서의 음악에 대한 새로운 체험 및 가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본 사업이 고단한 작업을 이어가는 창작자 및 연주자에 대한 격려가 되고, 무대에 올려질 작품들이 동시대의 창작 음악을 대표하기를, 지원신청인(단체)이 본인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의 음악 공연예술 문화가 본 사업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음악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5일(목) ~ 4월 6일(금)
- 회의장소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은혜, 김주연, 김철우, 이나리메, 이효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부문은 우수한 창작 오페라 작품을 발굴하여 본 공연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단계별 심의 과정을 통해, 음악 연주와 무대 연출의 부분적인 시도부터 본 공연까지 필요한 제작비, 인력, 시간, 기술 지원을 포함하여, 통합 홍보 및 온라인 중계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한국 오페라 창작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합니다.

2023년 공연예술창작산실 대본 공모를 통해 선정 된 세 작품과, 1, 2차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선정 된 두 작품, 도합 다섯 작품이 30분 분량의 실연심의를 거쳤습니다. 5인의 심의위원은 제출된 사업 계획서, 포트폴리오, 대본 및 악보, 예산 집행 계획서 등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실연과 단체별 인터뷰를 통하여 제안된 계획안의 미세한 요소들까지 상세히 검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는 각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진행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3개의 작품을 본 공연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충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해당 단체의 추가적인 설명 및 계획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5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역량의 우수성(20%)은 물론, 관객평가단(20의 점수를 포함하는 심의기준과 가중치를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관객의 관심과 기대를 반영한 관객 평가단의 평가도 전문가 심의위원의 평가와 함께 반영되어 최종 지원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구현 가능성을 세심히 고려하며, 각 작품이 제시하는 독창적 접근 방식과 예술적 시도가 오페라 창작의 다양성과 진화에 어떠한 기여 할 수 있는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작품마다 나타나는 작곡가의 개성적인 음악적 언어, 드라마의 전달력, 그리고 관객과의 교감은 현 시대의 예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창작자들이 깊은 사색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 참여가 확정된 지휘자, 성악가, 창작 스텝의 면면도 살펴보았습니다. 각 단체마다 제출한 자료와 실연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된 부분의 편차가 큰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종합예술로써의 오페라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작품 못지않게 프로덕션, 기획 능력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일

치되었습니다.

작품의 규모와 연출방식과 공연할 공연장의 특성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점이 모든 작품에서 드러나 아쉬움을 남겼지만, 제작진과 연출, 스텝진의 포트폴리오 검토를 통해 무대화가 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매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연출 과정에서는 작곡가와 대본작가의 의도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창작진 각자의 독창적 표현력과 개별적 감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고려했습니다. 이는 제작 과정 내내 유지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각 작품이 작가의 다양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를 오페라라는 장르로 구현하려고 하는 치열한 고민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페라의 전통적 형식을 고도로 구현한 작품들도 있었으며, 새로운 형식과 협업 방식, 혁신적인 무대와 음향 기술의 활용을 통해 오페라의 경계를 넓히려는 시도가 있는 작품들도 주목받았습니다.

안정적인 사운드와 실험적이며 다양한 층위를 표현하는 기법을 공존하게 하는 것은 오페라 오케스트레이션에서 늘 작곡가에게 고민을 던지는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도 오페라 음악의 한 중요한 축을 차지함에 착안하여 기법적 완성도와 실험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오케스트라를 다루는 감각과 수월성도 심의에서 고려되었습니다.

코러스의 역할 확장을 포함하여 성악적 부분에서 음향적, 연출적 신선함을 추구하는 여러 작곡가들의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신선한 도전들이 오페라 제작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어 예산 배정과 연습 과정에 통합될지에 대한 고민 역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동시대적 화두와 감각을 풍부하게 담아낸 작품, 그리고 우수한 음악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세련된 표현과 참신한 구성 및 접근 방식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본과 작곡을 한 작곡가가 작업한 작품도 있었는데, 앞으로 오페라를 작곡하는 작곡가들의 활동을 고무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음악적 구성에서 드라마틱한 표현을 강화하기 위한 이질적 요소의 적절한 투입은 작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음악의 기법적인 부분이나 무대 구현 과정에서의 위험부담도 큰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출적 실험의 당위성, 대본의 구조 및 내용과 음악의 결합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인공지능, 인류의 생존, 역사적 인물, 신화 등 다양한 장르의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과 환경, 미래 등 기존의 창작오페라에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소재들을 오페라 형식으로 들여왔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참신한 시도라 여겨집니다.

몇몇 작품은 이러한 테마를 소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지만, 음악 및 합창을 통해 주제 의식을 입체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작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해당 주제에 대한 단순한 소재적 활용을 넘어서, 탄탄한 극 구조와 깊이 있는 심리묘사를 담아낸 작품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실연 장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음악과 극이 밀도있게 이어져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든 참여 작품이 뚜렷한 개성을 발휘하고 실연 심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각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가운데, 심의위원회는 각 작품이 한국 오페라계에 새로운 파장과 도전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관객들에게 공연 관람의 감동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막바지까지 깊이 있는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구 온난화 오페라 1.5도 C>, <오페라 칼레아>, <윙키>라는 세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작품은 지구 환경문제, 인류의 미래, AI 시대의 도래와 같은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문제를 거시적 관점과 환타지적 요소, 그리고 광대한 세계관을 통해 접근하거나 미시적으로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는 방식으로, 작가와 작곡가의 진지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세 작품에는 총 6억 7천 5백만원의 지원금이 작품의 규모와 내용을 신중히 고려하여 차등 배분되었습니다. 특히, 특정 창작진에게 집중된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출연진과 기타 스태프 간의 예술적 기여도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창작 과정에서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뛰어난 실연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헌신하신 모든 창작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대를 아우르는 풍부한 소재와 주제를 담은 대본과 작곡가의 독특한 음악적 언어가 결합된 작품이 새로운 무대 기법과 조화를 이루어 창조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큼니다. 올해는 특별히, 혁신적인 무대 기술과 음향 기술, 그리고 코러스의 적극적인 활용과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위험과 노력이 동반됩니다. 선정된 작품은 창의적인 여정을 통해,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작품으로 우리 앞에 선보일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본 공모사업을 통해 예술가의 예술 활동을 통한 권리증진과 권리 보호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예산 분배가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창작오페라 분야 심의위원 일동

■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
- 회의일시 : (3차_실연심의) 2024년 4월 23일(화) ~ 4월 24일(수)
- 장소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성택, 박종환, 이영섭, 정성진, 정진세

'공연예술 창작산실, 올해의신작'은 동시대를 대표할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공연 제작과 홍보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새로운 레파토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신작 전통예술 장르 지원 건수는 총 25건이었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의 통해 8개 작품이 이번 3차 실연 및 인터뷰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8개 단체 중, 1개 단체가 사업 포기함에 따라 예비 순위 1순위가 올해의 신작(후보) 단체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3차 실연심의를는 작품성(예술적 우수성/차별성)(40%), 예산 및 일정계획의 타당성(10%), 실행 역량의 우수성(20%), 기대효과(지속성/파급력)(10%) 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관객평가단의 평가(20%)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최종 5개 단체(개인)에 382,000,000원의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심의위원은 연희, 기악/지휘, 작/연출, 기획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어, 1차부터 3차 심의까지 연속 참여하였습니다.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며,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심의위원들이지만, 공통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전통예술이 중심이 되어,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이면서, 완성도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했는지, 창·제작된 콘텐츠가 이후에도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였습니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밝혔던 작품의 의도와 창작계획이 얼마만큼 실제 반영됐는지, 이후 본공연을 대비한 준비는 세밀한지, 이를 잘 실행해 낼 수 있을지, 홍보전략은 어떻게 세웠는지, 본공연 이후 계획은 어떠한지, 예산계획은 타당한지 등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글과 말을 통해 기대감을 주었던 것들이 얼마만큼 무대에서 실제화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전통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더불어 실험성과 수월성, 확장성을 갖춘 신작을 찾아내기 위해 실연 및 인터뷰 심의를 심도 깊게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참가자가 짧은 준비기간 얼마나 정성껏 실연 심의를 준비했는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예술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이를 더욱 발

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영역의 이론을 차용해 새로운 시각에서 전통을 살피고, 새롭게 연출해 신선함을 느끼게 해준 작품, 다양한 전통 요소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스타일로 엮어내 본공연의 완성도를 기대하게 만든 작품, 전통의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창작무대를 세련되게 선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창작진과 협업으로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새로운 탈바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단체도 있었습니다. 강렬한 본공연을 상상하게 하는 예술가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무대도 있었습니다.

반면, 본공연까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연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을지, 이후에 지속성과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경우, 기획의도와 작품 컨셉에서 중요하게 거론한 것과 달리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지원사업은 전통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더불어 실험성과 수월성은 물론, 지속가능성, 확장성을 갖춘 신작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객에 대한 고민, 레파토리화 작업, 유통에 대한 계획도 창제작 기획 단계부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탄탄한 스토리텔링, 드라마 구조를 갖춘 '극' 장르 지원이 저조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될 본공연 무대가 기대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본공연 제작비와 통합홍보, 온라인 중계까지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전통예술)'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완성도를 갖춘 다채로운 전통예술 신작이 탄생하길 바랍니다.

2024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전통예술 분야 심의위원 일동